

동아시아 각국의 공휴일 제정(制定)원리 고찰

김정하*

A mythological analysis of the legal holidays in East Asian countries

Jung-Ha, Kim*

〈목 차〉

Abstract

- | | |
|-------------------------|-------------------|
| 1. 서론 | 3. 민속전통의 부활과 근대국가 |
| 2.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과 휴일 | 4. 결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analyze the principles of the legal holidays enacted by government in East Asian countries. In East Asian countries, modernization was performed by the effects of western culture. At the same time, traditional folk-culture was transformed and compounded with western modern culture. They show two aspects of daily life culture of modernized East Asian countries. In modernization process, national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led modernization and pursued compound of western culture & traditional culture.

So the characters of legal holidays imply East Asian's mythological thoughts & ritual meanings. And they are symbols which call national peoples' mind holy origin of nation, ethnic pride and national identity. And all the nations evoke patriotism and get national peoples' energy with them from the early period of modern ages to nowadays. Of course,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features of each countries. In Korea, traditional festive days were restored and the memorable days in which historical events happened were designated as legal holidays. In Japan especially, such mythological memorial days as the day in which Tenno Zinmu's coronation was happened or living Tenno's birthday were designated as legal holidays. In China, historical memorial days as the day in which China communist party's revolution happened were designated as legal holidays.

In other words, ethnicism and nationalism are the principles of designation of legal holidays. It is feature of East Asian culture that meanings of legal holidays were really contributed to the pursuit of modernization and maintaining national people's unit.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1. 서론

중국의 등소평은 1987년, “서양문물 중 중국에 도움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옛것 중 좋은 점을 오늘에 맞추어 받아들인다.(洋爲中用,古爲今用)”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비단 1987년 즈음만이 아니라 페리제독에 의해 일본이 개항을 강요받은 이래 동아시아 각국이 근대화를 이루어온 동아시아 각국이 취한 태도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동아시아는 일방적인 서구의 침탈에 원망을 가졌으면서도 문화상호간의 접촉을 피하기 어려웠고 이를 적절히 응용하여 자체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했다.

그렇듯 전통문화의 계승과 서구문명의 이입에 의한 근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국가였다. 물론 지역학에서는 지역의 단위를 국가로 보는 것이 과연 옳으나에 대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¹⁾ 하지만 적어도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나 북한에서의 근대 이래 생활문화를 살핌에 있어 국가주의의 영향이나 국가주의적 특성을 배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동아시아 나라들은 19세기 이래 근대화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발견했으며 전통민속을 근대적으로 변용하여 계승해왔다. 특히 동아시아 각국의 공휴일을 살펴보면 민속전통의 지속 및 변용과 아울러 근대가 이입된 이후의 서구문명의 영향이 잘 드러난다. 동아시아 문화를 일매지게 거론하기가 어렵고 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마리를 잡으려는 노력은 꾸준히 전개해야 하며, 그러고자 할 때 ‘일상적인 행위와 실천을 통해 얻는 의미와 가치가 산출 내지 표현되는 양식’, 즉 문화를 통한 접근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을 연역적으로 살핀 후 한·중·일을 비롯한 북한과 대만의 공휴일을 현상적으로 나열하여 국가적인 공휴일²⁾의 제정 원리를

1) 윌러스타인과 모델스키, 그리고 브로델은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지만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새스 터로우, 세계체제론에서 본 지역: 보편성과 특수성(손명철 편역,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명보문화사, 1994), 107쪽)

2) 한·중·일의 공휴일 현황(표기가 없으면 양력이며 음력만을 별도로 표기함)

(1) 한국

- 신정(新正): 2003년의 경우 첫날 하루 쉬고 2일부터 정상업무.
- 설날[舊正](음력 1월 1일 전후 2일간): 음력으로 새해 첫날.
- 삼일절(3월 1일)
- 사월 초파일(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 추석(중추절(仲秋節): 음력 8월 15일 전후 2일간): 연휴 3일.
- 개천절(10월 3일)
- 성탄절(12월 25일)

(2) 중국

추출하고자 한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이경우의 국가란 단지 통치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혹은 민족의 정신적 구심체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니고 있는 공휴일 제정원리가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동아시아 문화의 특성이자 이 글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2.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과 휴일

(1) 하늘 숭배

동아시아인들은 하늘의 운행원리, 혹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을 비롯한 지상의 만물이 살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자연의 주기와 리듬에 따라 풍속(風俗)이나 행위(行爲)를 조율하거나 계절의 변화나 천재지변이 닥칠 때마다 하늘에 제사를 올려 기운을 돋우고 재앙을 물리치려 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문화적 원류를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통해 검토한 김열규 교수는 “샤먼의 타계여행과 질병여행 사이에는 서로 유추관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말한다.³⁾ 타계여행이란 지상에서 천상이나 해저, 지하로의 이동을 말한다.

중국 남부와 인도지나 북부 타이계, 한반도 등지에는 자신들의 조상은 하늘에서 왔

- 원단(元旦)(신년(新年)): 1월 1일
 - 춘절(春節)(역년(歷年)): 음력 1월 1일부터 3일간: 공식연휴는 3일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긴 연휴.
 - 부녀절(국제여성투쟁기념일): 3월 8일 부녀자들에 한해 만나절을 쉬게함.
 - 노동절(5월 1일):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법정공휴일.
 - 청년절(5월 4일):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의 학생에 한해 휴무.
 - 아동절(6월 1일)
 - 건당절(建黨節): 7월 1일
 - 건군절(建軍節): 8월 1일
 - 국경절(10월 1일): 2일까지 연휴.
- (3) 일본
- 원일(元日)(1월 1일): 대개의 기업이나 상점이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휴무.
 - 성년의 날(1월 둘째 월요일): 1월 15일에서 2000년부터 1월 둘째 월요일로 바뀜.
 - 건국기념일(2월 11일)
 - 춘분의 날(3월 21일)
 - 녹색의 날(4월 29일)
 - 헌법기념일(5월 3일)
 - 국민의 휴일(5월 4일): 5월 3일과 5월 5일 사이에 끼어있는 날을 연휴에 포함시키면서 공휴일로 제정.
 - 어린이날(5월 5일: 端午의節供)
 - 바다의 날(7월 20일)
 - 경로의 날(9월 15일)
 - 추분의 날(9월 23일): 추분 전후 3일간 연휴.
 - 체육의 날(10월 둘째 월요일)
 - 문화의 날(11월 3일)
 - 근로감사의 날(11월 23일)
 - 천황탄생일(12월 23일)

3) 김열규, 한국신화 원류 탐색을 위한 시베리아 샤머니즘 및 신화(조홍윤 외,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하)』 (소화, 1996), 288쪽

다는 이른바 '천손강림형 신화'가 전해지며 일본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삼국유사』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인간을 만들고 지도자가 된 존재를 천신(天神)인 '황천상제(皇天上帝)'라 보았다. 일본의 경우 (古事記)에서는 태초에 하늘에서 내려온 남신 이자나키(伊邪那岐命)와 여신 이자나미(伊邪那美命)가 나타나 일본열도를 만들었다고 했다.

따라서 동아시아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하늘에서 온 존재”, 혹은 “하늘로 돌아갈 존재”이므로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믿음과 도덕률을 지니고 살아간다. 하늘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우주천지를 만들고 인간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하늘의 뜻을 되새기는 일이다.

(2) 농경의 전통

중국에서는 『서경』에 이미 태양력에 관한 기록이 보이며 4천여년 전부터 태양력에 따라 절기를 24로 나눠 생업력으로 삼았다. 설에는 한나라 무제때 사마천이 「태초력」을 만들어 정월 초하루를 새해 첫날로 확정했다 하며 후한서 「율력지」에 “세수지야(歲首至也)”란 말이 보여 1년을 시간단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삼국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 행사력에서는 1월 1일 설날, 1월 15일 상원, 5월 5일 단오, 8월 15일의 추석 등 전통명절로 주기성(週期性)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기성을 인식한다는 것, 즉 시간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생각은 끝무렵에 이르면 삶의 기운이 쇠잔해진다는 생각을 낳는다. 그러므로 한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늘, 땅의 신과 산천초목의 정령들에게 스러져 가는 생명력을 충만케 해주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 주기는, 전래민요 대다수가 노동요라는 사실로 알 수 있듯 농경의 주기와 일치했다. 중국의 춘절(春節)은 주로 농업과 관련된 신령에게 찬양을 바치고 보은(報恩)을 기리는 날이었다. 고대에는 '이단(履端)'이나 '과년(過年)', 상고시대에는 '납(蠟)', 하(夏)대에는 '세(歲)'라 했으며 상(商)대에는 '사(祀)'라 했으며 주(周)대에 이르러 '연(年)'이라 했다. '세'와 '사'는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며 연(年)은 그 글씨모양이 마치 사람[人]이 벼[禾]를 들고 서있는 모양, 혹은 춤추는 모양이다.⁴⁾ 한국, 일본 역시 농업, 특히 1년간 벼를 재배하는 주기에 따라 곡식이 한 번 여무는 1년을 주기의 기본단위로 여겼다.⁵⁾ 일본에서 '일본문화 = 도작(稻作)문화'라는 전제에서 농경세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⁶⁾

이처럼 세시풍속을 제의력(祭儀曆)과 생업력(生業曆)으로 나누어 그 체계와 주기성

4) 김인옥 편저, 『중국의 생활민속』(집문당, 1996), 1-12면.

5) 근래 언론에 보도된 '가야문화 연구'의 성과에 의하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수로왕 재위연대가 157 세라는 말은 1년을 2년으로 계산한 전기가야의 시간의식 때문이라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삼국지』에서 보듯 봄의 파종과 가을의 수확을 각각 한 해의 첫머리로 계산한 왜인들의 시간관념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제신문』, 2002년 12월 27일자, 23면 참조)

6) 남근우, II세시의례(한국일본학회, 『日本民俗의 理解』(시사일본어사, 1997년)), 99-142쪽.

으로 생활의 질서를 파악코자 할 때, 제의력은 생산에서의 풍요와 생활에서의 벽사진경(僻邪進慶)을 기구하는 이른바 '증식(增殖)의례'의 역법체계이다. 이는 사회적 시간을 범주화하는 준칙이 되고 이에 따라 조절된 생산활동의 시계적 체계가 생업력의 계열이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의 제의력과 생업력은 복합적 실체 혹은 구조적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⁷⁾

(3) 달[月]숭배

무속적 민간신앙과 음양론을 숭배하는 동아시아는 달을 숭배하며 그 리듬에 맞게 살리는 월력(月曆)문화를 지니고 있었다.⁸⁾ 음력에 따라 생업력을 만들어 지킬 때 가장 큰 명절은 한국의 경우 음력설이다.

한국에서는 오래전 부여족이 자기 나름의 역법(曆法)을 가지고 있음이 『삼국지』에 언급되었으며 신라 문무왕대에는 중국의 역술을 응용해 독자적으로 달력을 만들었다. 설날이란 '서러운 날(젊은 날)'이 변한 말로 신일(愼日)이라 부르기도 했다. 예로부터 이 날을 시작으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풍습이 있었다.⁹⁾

동아시아가 '달 문화권'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민속명절의 예가 정월 대보름과 추석이다. 곡물재배가 잘 되기를 비는 축원의례를 올리며 상원(上元)이라 불렀던 이 날은 그 해 첫번째 달이 뜬다는 의미에서 '첫날'이었다.

대보름날 한국에서는 쥐불놀이를 비롯한 달맞이, 달집 태우기 등의 놀이를 하거나 더위 팔기를 하거나 '부럼 깨물기'를 한다. 중국에서도 정월 대보름날은 원소절(元霄節)(등절(燈節), 등롱절(燈籠節))은 보름달을 기리는 명절로 여겨 찹쌀가루로 둥글게 빚은 원소를 먹는다. 또 북경의 궁등(宮燈), 상해의 채등(彩燈), 광주의 화등(花燈), 소주의 패등(掛燈) 등 처럼 지역마다 다른 등 위에 씌어진 수수께끼를 풀거나, 용춤이나 사자춤을 춘다. 일본에서도 돈도야끼라 불리는 불놀이를 하거나 연날리기, 팽이 돌리기를 즐기는 풍습이 전해진다.¹⁰⁾

달을 기리는 또 다른 명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추석이다. 한국의 추석은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부여의 영고를 잇는 날로, 이날 달맞이를 하며 송편을 먹고 강

7) 김택규, 歲時構造와 韓文化複合(조흥윤 외,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하)』(소화, 1996), 106쪽.

8) 일본은 해를 숭배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 달[月]을 숭상하다 근대의 국가주의 확산과정에서 '육일 숭배(旭日崇拜)'가 장려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모토 미치야, 「도시생활과 민속 - 정월참배의 생성과정을 통해서」, 동아대 특강원고, 1999.10.7.) 그러나 이미 에도시대부터 정월 초하룻날 길한 방위(惠方)의 신사나 절을 찾아 참배하는 풍속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宇野 幸, 年中行事つておもしろい(橋本裕之, 『目からウロコの民俗學』(PHP研究所, 2002年)), P.61.)

9) '전이(轉移)의 단계[liminal stage]'에 염려하고 조심하며 언행을 삼가는 민속은 해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각종 금기를 지시하거나 문지방이나 다리, 문간, 동구(洞口) 등 이행(移行)공간에 벽사진경(僻邪進慶)을 위한 대련(對聯)이나 문신화(門神畫), 장승을 진설하는 예에서 볼 수 있듯 보편화된 민속이다.

10) 한국이나 중국, 일본 모두 명절에 등불이나 횃불, 달집태우기 등의 풍속으로 불을 선호하는 의미는 불교적 의미보다 만물의 생생력(生生力)이 부족한 계절에 우주적 에너지를 되살아나길 기원하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수월래 등 놀이를 하는 풍습이 있다.

중국에서도 음력 8월 15일을 예로부터 집안사람들이 반드시 모이거나 여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로 단원절(團圓節)이라 불렀으며¹¹⁾, 요즘에는 팔월절(八月節)이라 부른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오봉'이라 부르는 날에 조상을 맞이하고 보내는 의식을 거행한다. 13, 14일에 등롱(燈籠)을 매달고 짚으로 만든 말과 소인형을 집 안쪽을 향하도록 매달거나 세워두면 조상의 영혼이 연기를 타고 등롱불을 표식 삼아 소에 집을 싣고 말을 타고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러면 봉다나[盆棚]에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승려가 찾아와 독경을 한다. 다시 16일에는 말과 소의 머리 방향을 집 바깥으로 향하도록 해 조상을 떠나보내고 강에는 등롱을 띄워보내 조상의 명복을 빈다.

(4) 농촌문화의 도시화

2차대전후 유고슬라비아에서 (가)농촌민속의 도시 침투, (나)도시화 지향과 농촌문화 배제, (다)변형된 농촌문화의 도시문화로의 재형성' 등의 단계가 차례로 나타났다는 견해가 있다.¹²⁾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아시아에서도 것처럼 단계적으로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의 반복에 의해 공동체가 추구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농경문화, 음력문화를 지닌 동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근원이나 배경, 본질이 농촌에서 출발하여 도시화되었다고 믿는다.

일본인들이 봄과 가을 두 차례 조상의 영혼을 받드는 제의에 대해 야나기다 구니오는 "죽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는 방법"이라 말한 바 있다.

일본인 뿐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에게는 흔히 농촌으로 관념되고 전형화되어있는 '고향(故郷)'을 찾는 일이 삶의 의욕과 기력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세시풍속에 치르는 과도기적 의례는 여가를 통한 변화(change)¹³⁾와 '전환(transition)'이자 "자신의 삶에 대한 총체적 관찰이나 성찰"¹⁴⁾을 통하여 극심하게 변화되어가는 가치관이나¹⁵⁾ 사회적 규범에 맞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키는 계기이다.

이는 근대화에 대한 반동으로 근대국가에서 '전원적 공동체'가 추구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¹⁶⁾ 그러다보니 명절을 통한 전통문화 되살리기는 지배층에 저항하는 대중

11) 이때의 '團'자는 '둥글다'는 뜻과 '함께 모인다'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圓'자 역시 중추(中秋)의 달이 둥글다는 뜻을 함께 지닌 글자로 본다. (燕中人 主編, 中國文化大博覽(中)(南海出版公司, 1991年), P.684.)

12) (Dunja Rihtman-Augustin, "Traditional Culture, Folklore, and Mass Culture in Contemporary Yugoslavia" (Edited by Richard M. Dorson, 『Folklore in the Modern World』(Mouton Publisher, The Hague, Paris, 1978), PP.165-166.)

13) Langdon Elsbree, 『Ritual Passages and Narrative Structures』(Peter Lang Publishing, Inc., 1991), P.2.

14) 이승훈, 『문학상징사전』(고려원, 1995년), 537쪽.

15) 제베데이 바르부는 과도기적 시대에 "극도의 잔학과 사랑, 극도의 동정과 복수심, 극도의 영적인 것과 관능적인 감정 사이에서 방황하는"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제베데이 바르부, 임철규 역, 『역사심리학』(창작과 비평사, 1990년), 67-100쪽.)

16) 레이몬드 윌리엄즈 저, 이일환 역, 『理念和文學』(문학과 지성사, 1983년), 154쪽.

17)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한나래, 1999년), 301쪽.

18) 한때는 '한국적 민주주의'나 '정통성'을 내세우는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장려한 적도 있다.

의 자발적 생산품이자¹⁷⁾ 수단이 되기도 한다.¹⁸⁾ 풍습을 획일적으로 변화시키려 한 정부에 저항하여 타율적으로 규정된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개인을 확인하면서 공동체적 분위기를 되살려내는 것이다.¹⁹⁾ 예컨대 한국의 “음력설”의 부활에 대한 요구도 점진적인 민주화의 요구와 함께 제기되었다.

(5) 국가주도형 근대화와 세시풍속

서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사업 중 민족적인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가적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근대적으로 변형된 세시풍속이었다. 세시풍속의 변형은 대체로 양력의 도입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력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과 시행으로 근대국가의 형식과 내용을 갖출 수 있다는 믿음도 그 중 하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력기원(西曆紀元)을 받아들이거나 주휴제(週休制)를 처음 도입하는 시점에서 적지않은 사회갈등을 겪어가면서 이를 도입했다. 기술과 문명의 힘을 빌어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아시아 각국은 음력 대신 양력을 채택해 서구를 모델로 하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이 필수적이라 믿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1948년 9월 25일에 제정된 단기(檀紀)가 1962년 1월 1일부터 서기(西紀)로 바뀌면서 양력에 의한 생업력이 강조되고 음력설을 금하는 등 근대화의 의지가 천명되었다. 중국에서도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 성공을 기해 서력기원을 택하면서 양력 새해 첫날을 공휴일로 정해놓고 기념하기 시작했다. 대만은 1912년 1월 1일을 공식적인 ‘개국기념일’로 삼았던 역사를 이어받아 이날을 공휴일로 정해놓고 있다. 1949년 9월 27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차회의는 ‘원단(元旦)’이란 명칭을 양력에 맞춰 부르기라고 하고 음력설은 ‘춘절(春節)’로 고쳤다. 일본은 1872년에 양력을 채택한 이래 과세(過歲)나 생업력(生業曆) 모두를 이에 맞추었다.

1년 단위의 시간이 국가의 목표에 맞춰 관리되면서 일과 놀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세시의례 역시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그 의미나 형태가 변화되거나 사라졌다. 즉, 근대화로 인한 사회조직의 거대화는 필연코 표준화되고 규격화되는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되며²⁰⁾ 국가는 공적 차원에서 공휴일을 정해 국민의 휴일을 공적 차원에서 관리하여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²¹⁾ ‘건국 기념일’이나 ‘국왕 탄생일’ 등을 공휴일로 정하면서 휴일에 국가적으로 국민을 결속시키려는 목적을 담아 기리기 시작했다.

그렇듯 동아시아에서 국가주의 이념에 따라 공휴일을 관리해온 기원은 역시 근대일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근대를 추구하던 일본에서는 “민족주의적 엘리트에 의한 이

20) 오재환, 「한국의 ‘근대화’ 의례 연구」(부산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년), 160쪽.

21) 원래 근대적 휴일(holiday)은 종교나 노동단체의 결의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풍습이었다. 유럽에서는 ‘일요일’이나 ‘예수 수난일’, ‘크리스마스’, ‘부활제’를 정해놓고 상인과 직인(職人), 노동자에게 영업이나 노동을 못하게 했다.

데올로기의 '생산' 및 국가의 의한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전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메이지 시대의 엘리트는 이것을 가족주의와 국가 신도(神道)의 기반 위에 천황제의 '전통'을 창조하고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국민'의 연대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²²⁾

물론 그러한 근대화 방식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방 내지 답습되는 과정에서 나라마다의 각기 다른 전통과 풍습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요소에 의해 다양한 변이형을 낳았다. 그럼에도 '민속전통의 보존과 공유에 의한 민족적 일체감으로 국가적 단결을 도모한다'는 목표설정 내지 실천방식은 롤랑 바르트 식(『신화론』)으로 말해 유사한 지식, 과거, 기억의 상정에 의한 사실, 이념, 결정으로 나타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여기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공휴일 및 그 제정원리라고 보려는 것이다.

3. 민속전통의 부활과 근대국가

(1) 민속전통의 부활

가. 한국

신정(新正)에는 국가적으로 하루를 쉬며 대다수의 직장에서 2일 오전 10시경에 시무식(始務式)을 거행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에 비해 음력설인 설날[舊正](음력 1월 1일 전후 2일간)은 1989년 이후부터 "민족명절"임이 강조되면서 공휴기간이 늘어났다. 설날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어른이나 친척에게 세배를 올리며 덕담(德談)을 주고받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새로 지은 옷, 설빔을 입고 나이를 먹는다는 표시로 세찬(歲饌)인 떡국이나 도소주(屠蘇酒)를 먹으며 연날리거나 옷 같은 놀이를 즐겼다. 언론을 통해 세화(歲畵)와 연두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의 신년사(新年辭)가 발표되며, 12간지 중 그 해의 상징동물에 대한 해설이 소개된다. 귀성객으로 인해 기차표나 고속버스표는 일찌감치 매진되며 연휴가 시작되면 전국은 고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린다.

동아시아인들에게 휴일은 '하늘 숭배', '농업력', '달 숭배' 등이 서로 맞물린 우주적이고 자연적인 삶의 계기였다. 한국에서라면 동계와 영등맛이를 비롯한 한식, 삼짇날, 불탄일, 유두, 복날, 칠석, 백중, 중양절, 묘제, 동지, 제석(除夕:선달그믐날) 등이 그러

22) 요시노 고사쿠(吉野耕作), 김태영 옮김, 『현대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일본어뱅크, 2001년), 211쪽.

한 '휴일'이었다.

그런 민속전통을 기억하는 동아시아인들은 근대산업화기를 맞아 오히려 더욱 맹렬한 '귀성(歸省)을 통해 '근원으로의 회귀를 통한 시간의 재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9대 속절(俗節)", 조선시대에도 "4대 명절"이던 음력설은 1930년대에 일제에 의해 금지당한 역사가 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도 '이중과세(二重過歲)를 피하자'는 정부정책으로 1989년까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정(舊正)을 쇠겠다는 국민적 요구가 워낙 거세어 19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부활되었다. 다시 1989년 2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음력 1월 1일 전후 3일간이 '국가 지정 공휴일'이 되었다. 근대화의 진행과 더불어 점증하는 자연과 우주로의 회귀를 열망이 이를 되살려낸 것이다.

추석(중추절(仲秋節)):음력 8월 15일 전후 2일간)은 설날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여기며 연휴를 누리는 기간이다. 그러나 "산업화 시기 추석이 공휴일화되면서 단오 행사가 사라지는²³⁾ 세시풍속의 인위적 변화도 엿보인다. 오늘날에는 달맞이 풍습을 재현하여 '달맞이 축제'를 여는 지역이 많다. 부모님이나 직장상사, 스승에게 선물을 하는 풍습이 일반화되어 '추석 특수(特需)'라는 말도 있다.

사월 초파일(음력 4월 8일)은 불교에서 성인으로 추앙하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며 성탄절(12월 25일)은 기독교에서 구세주로 섬기는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다. 이는 정통성을 숭배하는 차원에서 두 종교의 개조(開祖)의 탄생일을 섬김으로써 불교나 기독교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다.

나. 중국

양력설인 원단(元旦)(신년(新年):1월 1일)은 양력 도입에 따른 새해 첫날로 "원단경축(元旦慶祝)"이라는 초롱을 걸고 맞이하는 날로,정부책임자들의 각종 신년사가 발표된다.²⁴⁾

음력설인 춘절(春節)(역년(歷年):음력 1월 1일부터 3일간)은 중국의 '민속의 날'로, 공식적으로는 3일간의 연휴지만 실제로는 이동거리가 긴 사람을 위해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을 얻은 귀성(歸省)인파로 중국 전체가 떠들썩하다. 춘절이 되기 며칠 전부터 거리와 상점이 설빔을 장만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고향을 떠나 살던 도시인들이 귀향을 위해 몰려드는 역 주위가 복잡하다. 설날 그믐날에는 온가족이 둘러앉아 연야반(年夜飯)을 즐기며 수세(守歲)를 하다 자정이 되면 폭죽을 터뜨린다. 초하룻날에는 문신화(門神畫)와 대련(對聯)을 붙이며 "gong xi fa cai恭喜發財!"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23) 오재환, 위의 논문, 165쪽.

24) 한국에서도 유신체제에서는 한동안 이런 신년사를 연두교서(年頭敎書)라 불렀는데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교육칙어(教育勅語)를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 보기에 따라서는 '신언'이나 '선서', '강령', 공약, 그리고 각종 **사(辭)가 언어의 주술적 힘에 기대려는 의도를 담은 행위라 할 수 있다.

건넨다. 이 “돈 많이 버세요”라는 인사법은 중국전역에 퍼져 개혁개방 이후의 재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데 한국에도 전해져 “부자 되세요!”라는 새해인사로 번역되어 유행할 정도이다. 그에 따라 복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전통민속을 되살린 놀이나 치장 도구가 점차 화려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월절’은 온가족이 모여 달맞이를 하고 월병(月餅)을 먹는 풍습이 전해지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서인지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 지나보낸다.

다. 일본

원일(元日)(1월 1일)휴무에는 대체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휴무하는데, 12월 31일 자정에 108번 울리는 ‘제야의 종소리’로 시작하여 1일부터 3일까지를 오쇼가쓰[正月]라 하여 아는 사람에게 새해인사를 나누는 기간이다. 설날 아침 신사에 가서 복을 비는 하쓰모데[初詣]를 하면서 오미쿠지로 운세를 점치거나 에마를 사서 소원을 적어 매어댄다. 3일은 가족들의 신년이 시작되는 날로 여겨 문간에 가도마쓰[門松]라 부르는 화분에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를 꽂아두었다가 15일에 태워버린다.²⁵⁾ 정초 무렵에는 꺼리는 날이 많아 특히 상점에서는 복신(福神)이 나간다고 믿고 빗자루로 먼지를 쓰는 행위를 금한다. 설에 먹는 시식(時食)으로 가가미모치[鏡餅]²⁶⁾와 오세치[御節]²⁷⁾, 조니[雑煮] 등이 있다. 덕담을 주고받고 도소주(屠蘇酒)를 건네거나 친지나 평소 신세진 사람들을 찾아 인사하는 풍습이 전한다. 요즘엔 시식은 백화점에서 마련하는 경향이며 연하장(年賀狀)이 일반화되어 매해 약 2억통이 오간다.

중원이나 오봉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관공서도 정상업무를 하지만 기업체는 3일 정도 휴가를 준다. 오봉은 지역마다 날짜가 달라서 대다수 지방에서 8월 15일이지만 관동지방에서는 양력 7월, 관서지방에서는 음력 7월 13일-15일이다. 대개는 7월 15일을 ‘중원’이라 하고 8월 15일을 ‘오봉’이라 하여, 중원에는 직장에서 신세진 사람에게 우편으로 맥주나 음료수, 오봉에는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과일이나 과자류를 선물한다. 이 무렵 양자로 남의 집에 거 있거나 외지에 나가 있거나 시집간 딸이 살아있는 부모를 찾아와 선물을 바치는 풍습, 이키미타마[生見玉]가 있다.

25) 『山海經』에서는 곤륜산(崑崙山)에 있는 신목(神木)[尋木, 若木, 扶桑, 健木]을 매개로 천상, 지상, 지하가 연결된다고 했으며 일반적으로 사머니즘에서는 신성한 나무를 신이 강림하는 빙의(憑依)의 수단물로 본다. 일본 이 가도마쓰[門松]에 대해 새해에 복숭아 나무로 판자를 만들어 걸던 중국 고대풍속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주장(과대신, 기홍 저, 박현규 역, 『중국 민속학』(백산자료원, 1998년), 17쪽.)이 있으나, 일본 효고현의 풍습을 보면 이는 토시가미[年神]를 맞아들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芳賀日出男, 『日本の民俗(下)-暮らしと生業』(クレオ, 1997), P28.)

26) 쌀농사(稻作)중심의 문화권에서는 쌀로 만든 떡을 시식(時食)으로 삼는 것이 일종의 곡물정령의 숭배에 해당한다. 일본신화를 적은 『기기(記紀)』의 천손강림 장면에서는 ‘하늘의 제정[齋庭]의 벼이삭[穂]’에 대한 언급이 있다.(佐佐木高明, 『日本文化の基層お探る』(日本放送出版協會, 1997년), PP.106-108.)

27) 청어알은 ‘자손 번창’, 마른 멸치는 ‘풍작’, 연뿌리는 ‘지혜의 눈’, 새우는 ‘장수’, 금갈은 ‘부귀영화’, 다시마는 ‘일년 내내 기쁜 일만 있기를 바람’, 조린 검은 콩은 ‘열심히 산다는 의미’로 여긴다. 일종의 언어주술(言語呪術)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일종의 계절제로 춘분이나 추분이 기려진다. 춘분의 날(3월 21일)은 봄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날로 대개 조상의 묘를 찾는다. 입춘 전날은 세썬분이라 하며 "잡귀는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 외치며 썬 콩을 던지는 풍습이 있다. 추분의 날(9월 23일)은 가을이 시작되는 추분을 전후 3일간 조상을 추도하는 휴일이다.

(2) 근대국가와 국민단합

가. 한국

개천절(10월 3일)은 기원전 2333년 한민족의 조상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창건한 날로 기념한다. 그런데 이처럼 고대를 배경으로 한 국가창건일이야말로 국가를 수립하고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근대의 장치이자 창안물이다. 이에 비해 1945년의 해방을 중심으로 근대국가의 성립과 관련된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가장 많다. 삼일절(3월 1일)은 일제 치하였던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비폭력 독립운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현충일(6월 6일)은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과 6.25동란의 전투 등에서 순국(殉國)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날이다. 제헌절(7월 17일)은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 한국이 독립국가로서 첫 번째 헌법을 제정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광복절(8월 15일)은 1945년 8월 15일,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어린이날(5월 5일)은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날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편의시설이 곳곳에서 무료로 개방된다.

나. 중국

중국은 사회주의적인 공동의 이상을 건설하기 위해 우수한 혁명전통을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래서 중국 근대사에서 오늘날의 국가체제 유지에 필요한 특이한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내어 이를 기념함으로써 그 이상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침투되도록 유도한다.

먼저 건당절(建黨節: 7월 1일)은 1921년 7월 상해에서 창건된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재통일한 업적을 기리는 날로 1941년 7월 1일에 제정됐다. 건군절(建軍節: 8월 1일)은 1927년 8월 1일 중국공산당이 남창에서 무장봉기한 날을 기리는 인민해방군 창건일로서, 군(軍)과 인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행사가 펼쳐진다. 국경절(10월 1일: 2일까지 연휴)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역사를 기리는 건국기념일로, 2일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중국 최대의 국경일로 천안문 앞 열병식을 비롯한 각종 대형행사가 베풀어진다.

또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최종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각계 각층의 국

민들을 격려하여 소질을 제고하고 분발토록 촉구하는 기념일을 두고 있다. 부녀절(국제여성투쟁기념일:3월 8일)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시카고에서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이듬해인 19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2차 국제사회주의 여성대회'가 개최된 날을 기념하여 국제여성의 날로 정하고 "3.8홍기수(紅旗手)"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청년절(5월 4일)은 1919년 북경에서 벌어진 5.4혁명운동의 '반외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날로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의 학생에 한하여 휴무를 준다. 아동절(6월 1일)은 194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민주여성연합회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국제아동절'을 이어받아 제정한 날이다. 이날 중국 전역에서 아동들이 경축행사와 오락행사에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 즐긴다. 특히 노동절(5월 1일)은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각별한 배려를 보여주는 날이다. 마르크스가 노동자를 생산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능동적 요소로 본 노동자는 특히 중국에서 고도의 정치의식을 지니고 자각적으로 연구하며 과학, 문화 수준을 제고해야만 장차 자본주의보다 고도의 노동생산성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하는 존재로 강조된다.²⁸⁾ 이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총동맹파업을 벌인 일을 기념하여 1889년 제2차 국제회의에서 국제노동절로 정한 날로서, 모범노동자를 선정하여 "5.1 노동자상"을 수여하는 행사가 있다.

다.일본

건국기념일(2월 11일)은 『일본서기』에 근거하여 기원전 660년에 진무천황이 즉위한 날이라 보고 1996년부터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근대국가의 창건을 기리는 날로 헌법기념일(5월 3일)은 1947년 5월 3일 현 일본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민의 휴일(5월 4일)은 5월 3일과 5월 5일 사이에 끼어있는 날을 연휴에 포함시키면서 이름을 지어 공휴일로 제정했다. 바다의 날(7월 20일)은 1876년 메이지천황이 도호쿠지방을 순항하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96년부터 국경일이 되었다. 천황탄생일(12월 23일)은 현 천황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1989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천황이 사는 곳이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이처럼 국가는 '민속전통의 현재화'와 '국가기원의 신화화'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쇄신을 도모하도록 유도해왔다. 일본의 '건국기념일'이나 한국의 '개천절'의 국경일 제정은 신화와 전설을 근거로 한 서사가 진실인 것처럼 역사화하는 행위는 국가체제의 유지와 이데올로기 정립의 수단이었다.²⁹⁾ 그런 이데올로기의 구체화는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에 의해 시행된다. 10년마다 개정되는 일본 문부성의

28) 임영웅, 『12억의 야망』(녹원출판사, 1992년), 190쪽.

29) 정재서, 「서사와 이데올로기」(정문길 외, 『동아시아,문제와 시각』(문학과지성사, 1996년)), 157쪽.

30) 요시노 고사쿠, 앞의 책, 222쪽.

‘학습지도요령’은 국가주의 교육에 대한 자세와 의도를 드러내는 자료이다. 초등학교에서 1992년부터, 중학교는 1993년부터 실시된 ‘요령’에서는 국어, 사회, 도덕에서 전통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전통문화가 강조됐다.³⁰⁾ 물론 이 경우의 도덕교육이나 ‘천황에 대한 이해와 경애’의 부활이야말로 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국민들 각 계층을 배려한 기념일로, 우선 성년의 날(1월 둘째 월요일)에는 20세가 된 젊은이들이 성년이 되어 선거권을 얻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부분의 도시나 마을에서 기념식이 거행된다. 어린이날, 단고노셋쿠(5월 5일)은 본래 남자아이들의 건강을 비는 날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남녀어린이 모두를 위하는 날이다. 경로의 날(9월 15일)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날이다.

국가적 가치를 장려하는 날로, 녹색의 날(4월 29일)은 소화시대에는 히로히토천황의 생일이었다. 그러나 1989년에 히로히토가 별세하자 국가는 이를 식목일로 바꿔 나무심기를 장려하는 날로 정했다. 체육의 날(10월 둘째 월요일)은 1964년 10월 1일의 도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여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장려하는 날이다. 문화의 날(11월 3일)은 문화와 자유, 평화를 사랑하도록 장려하는 날이다. 근로감사의 날(11월 23일)은 수확을 기리며 근로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날이다.

(3) 민속전통과 국가주의

가. 국가성립의 신화화

한국의 개천절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개조(開祖) 단군을 기리는 날이다. 그 뿐 아니라 고조선 개국으로부터 1백 24년 전인 기원전 2457년 환웅이 처음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음력 10월 3일이다. 한국의 불교와 기독교 성인의 탄생일인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한국인들의 복합적인 정신세계를 드러내는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만에서도 12월 25일 성탄절은 공휴일로 지정된 점과 비견할만 하다.

또, 일제의 통치로부터의 독립된 광복절이나 3.1절을 의미있는 날로 여기는 동시에 근대국가로서의 수립을 기념하는 제헌절도 기리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을 염두에 두어 제정했다. 한편 현충일은 조국의 수립과 수호를 위해 몸을 바친 조상들의 음덕(陰德)이 조국을 수호하리라는 전통적인 영혼관에 의해 제정된 날이다.

일본의 건국기념일도 『일본서기』에서 찾아낸 진무천황의 즉위일이다. 이 경우 『일본서기』가 위작(僞作) 시비에 휘말리는 사실과 국가지정 공휴일의 근거와는 전혀 무관

하다. 이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천황탄생일 뿐 아니라 이미 서거한 천황의 생일까지 '녹색의 날'로 개칭하여 공휴일로 제정한 것은 일본의 근대화가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국가의 주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천황은 1889년 공포된 「제국헌법」과 「황실전범」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이래 국민통합을 강조한 메이지유신의 구심점이었다. 패전 후인 1946년 1월 1일 천황은 인간선언을 하면서 “신화와 전설”을 부인했음에도 여전히 일본헌법은 천황을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입각한다”고 못박고 있다. 수많은 일본 극우단체의 비호에 둘러싸인 천황이나 화족(和族)에 대해서는 언론은 물론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일본의 분위기는 신화적이라 말할 수 있다.

흡스보움은 유럽 각국의 대표적 상징들이 실은 날조된 것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일단 되살려진 국가의 전통이 원래 것처럼 화려하고 거창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엽, 빌헬름시대의 독일과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의 '후대에 만들어진(invented)' 의례와 전통들도 매양 그러했다.³¹⁾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받아들인 경우에는 날조된 것이 본래적인 것보다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일본인들이 설날에 신사를 찾아가는 하쓰모데[初詣]는 본래 그 해의 간지(干支)에 따라 길한 방위에 있는 절이나 신사를 찾아가 참배하던 에도시대의 풍습, 에호[惠方]가 근대적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것이 차차 새해 첫날의 해를 맞이하는 풍습으로 바뀌어 명치 6년(1873년)부터 궁중의례로만 행해지던 니이나메사이[新嘗祭]가 국가의례로 지정되었다. 명치 20년대에는 천황의 사진에 대한 참배(‘신년배하식’)가 관공서에서 행해지다가 드디어 명치 24년(1891년)에 천황의 교육칙어를 봉독하고 천황의 사진에 대해 배례하는 원단절(元旦節)이 제정되어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과 함께 3대절로 교육현장에 정착되었다. 그 후 대정 3년(1914년)에 ‘관국폐사이하신사제사령(官國弊社以下神社祭祀令)’에 따라 정월 초하루의 신사참배, 즉 하쓰모데가 일반화되어 차차 농촌으로까지 퍼져나갔다.³²⁾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국가성립의 개조(開祖)나 민속전통을 기리기 보다는 역사적 기념일에 비중을 두고 있다.³³⁾ 중국공산당 창건일인 건당절(建黨節)이나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인 건군절(建軍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기념하는 국경절 등이 이에 해당한다. 5월 4일 청년절만 하더라도 1919년 천진에 대한 독일측 권리를 일본에게 양도할 것을 결의한 ‘파리강화회의’의 결정에 분노하여 북

31) 흡스보움. 랑거 편,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서경문화사, 1999년), 176-177쪽

32) 橋本裕之, 『目からウロコの民俗學』(PHP研究所, 2002년), PP.60-61.

33) 구태여 예를 든다면 단오절(음력 5월 5일)이 기원전 287년 초나라 애국시인 굴원이 자결한 일을 기리는 날로 기억되며, 굴원을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찾아가던 일을 기념하는 용선시합을 비롯하여 종자를 먹는 풍습이 전해지는 정도다.(윤순희, 『중국문화입문』(동양문고, 2000년), 47쪽.)

34) 롤랑 바르트 지음, 정 현 옮김, 『신화론』(현대미술사, 1995년), 28-30쪽.

경의 젊은이와 학생들이 일으킨 운동을 기리는 날이다.

이처럼 국가성립기에 벌어진 역사적 사실들을 기리는 기념일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과거사를 현재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을 고취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성을 향해 역사가 진보한다는 신념을 주입시킨다. 기념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의 표출은 역사를 정신적인 가치로 환원하여 국가주의적 신념을 갖게한다는 점에서 '신화적'이다.

신화가 의사소통의 방식이며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라는 전제 아래 롤랑 바르트는 잡지 「파리 마치」의 표지에 실린 그림을 분석한다. 프랑스 군복을 입고 프랑스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는 청년은 “프랑스는 위대한 제국이며, 프랑스의 모든 자손들은 인종 차별 없이 프랑스 국기 아래에서 평등하게 군에 복무한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이 의미는 일종의 지식, 과거, 기억을 상징하며 사실들, 이념들, 결정들을 비교할 수 있는 질서를 상징한다는 것이고 그 질서는 신화의 법칙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³⁴⁾

더구나 민간신앙이 강조되는 동아시아에서는 사회주의국가 수도의 한복판을 달리는 택시에서조차 모택동의 초상화가 걸린 모습을 자주 보게된다. 그 이유가 “초상화가 재복(財福)을 안겨주기 때문”이고 보면 이는 부적을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엘리야데는 마르크스 역시 '종말신화'를 이어받은 '종말관적 지복천년설'을 공산주의 사상에 담아냈으며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절대역사에 대한 희망'을 그의 사상에서 활용했다고 본다. 설령 역사발전론에 따라 국가의 기원을 기리고 신성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신성한 태초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신화적 시간관과 결코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기념일 역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영원무궁한 존속을 기원하는 날로 여겨진다.

과연 근대국가 수립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자 동아시아 각국은 다시 각자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헤이세이[平成]”, 대만은 '민국(民國)', 북한은 “주체” 등으로 각자의 독특한 연호(年號)를 쓰고 있는 것이다. 또, 국경일이나 식장에서 불리워지는 각국의 국가(國歌)나 기념가 가사는 '절대적인 권위의 신이나 해와 달, 하늘과 땅 등 운세상으로부터의 축복', '조상의 음덕(陰德)에 대한 칭송', '영원에의 기원' 등 신화적이거나 '화합'이나 '공동체의 영원무궁한 존속'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북한은 1997년 7월 9일을 기해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제정하면서 “우리 인민은 태양민족의 역사로 기록해나가는 인민으로 우리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4월 15일을 자자손손 내려가며 해마다 태양절로 가장 성대히 기념할 것이며 수령님의 생애와 업적을 만대에 전해갈 것”이라 했다. 주체사상과 김일성을 태양의 이미지로 대치하고자 한다. 나아가 선거일 등 국가적 행사가 치러지는 날을 특정한 종교의 색채와는 무관하게 “신성한 날”로 여겨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근대이념에 의해 수립된 국가를 신성시하기 위해 신화와 의례에 배어있는 민족우월적인 사고가 동원된다. 그러나 것처럼 민족을 “신정신(神情神)의 개체화”로 강조하는 경우의 위험성은 배타적이고 우월적 자민족중심주의로 인해 제2차세계대전의 비극을 일으킨 독일제국이 잘 보여주었다.³⁵⁾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역시 민족주의적 신념에 의해 갈등이 재연될 잠재성이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다. 대만은 1947년에 벌어진 '2.28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평화기념일'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제정하고 있다. 한국의 4.3제주항쟁이나 광주민주화운동과 비교, 연구되는 대만의 2.28항쟁은 1945년 일제 패망 이래 대만통치를 시작한 장개석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유혈사태로서 오랜 진상규명(眞相究明)을 거쳐 1996년에야 결실을 맺었다. 이 날은 민주주의와 독립, 평화를 지키려는 대만의 염원을 나타내기 위해 기념된다고 운위되지만 어떻게 말하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대만인들의 뚜렷한 민족의식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활력

동아시아에서의 대다수 민족이나 풍습, 관행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영향 아래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양력 1일부터 3일까지를 “국민의 축일(祝日)”로 명명한 데서도 볼 수 있듯 근대화는 국가적 사업이다. 5월 3일과 5월 5일 사이에 끼어있는 날을 “국민의 휴일”로 명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역시 집단적 자아의식을 자극하여 민족과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추동(推動)한 결과였다.³⁶⁾ 마치 아버지인 국가가 자식들 같은 국민을 보살피는 배려도 동아시아의 국가주의적 특성이다.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활력을 구하고 늙은 세대를 봉양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지혜를 구한다는 동양적인 미덕을 국가가 앞장서서 권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어린이의 성장이나 젊은이들이 성숙에 대한 기원, 노인에 대한 감사를 법정 공휴일을 통해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선도한다. 중국도 역시 ‘아동절’과 ‘청년절’, ‘부녀절’ 외에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8월 15일을 ‘경로(敬老)의 날’로 기념한다. 1980년부터 중국에서 ‘한 자녀 낳기’ 정책이 엄격히 시행되면서 이른바 아이들은 “소황제(少皇帝)”로 자라나고 이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각별하여 ‘6.1절’은 어린이 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명절이다. 한국은 1923년 서울 천도교회의 소년회의를 중심으로 소파 방정환의 지도 아래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다 1945년 이래 5월 5일을 공휴일로 제정했다. 1956년에 제정된 5월 8일 ‘어머니날’은 ‘아버지날’도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1973년 ‘아버지날’이 되었다가 보건사회부 주관 기념일로 명맥을 잇고 있으며 부모에

35) J.F.노이로르 저, 전남석 역, 『第3帝國의 神話-나치즘의 精神史』(한길사, 1981) : 특히 제10장. 神聖帝國 참조 바람.

36)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형숙역, 『상상의 공동체』(나남출판, 2002년), 188쪽.

게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풍습이 있다. 이 풍습은 영국과 그리스에서 '사순절' 첫 날부터 네 번째 일요일까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교회를 찾던 풍습과 1910년 무렵 미국의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고자 흰 카네이션을 달던 풍습이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국가는 체전이나 예술경연대회, 기능대회 등 국가가 후원하는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사기를 진작시킨다. 일본은 체육의 날이나 문화의 날, 근로감사의 날을 두어 '건강', '문화', '노동'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절로 '노동'의 가치를, 교사절로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숭상, 노동자에 대한 배려, 과학과 기능, 기술 교육의 강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교사절(9월 10일)은 1982년에 제정된 스승의 날로, 교사들의 공적을 표창하는 행사가 거행되지만 휴가를 얻는 사람은 교사에 한정된다. 유난히 '교육'이 강조되는 한국에서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두어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스승의 날은 1963년 5월 26일 청소년적십자(JRC)의 사은행사를 시작으로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뀌었다. 1973년 '서정쇄신 정책'에 따라 폐지했다가 1982년 다시 부활되었으나 '학교 부정'에 대한 염려로 공식적인 행사만을 치른다.

명절을 맞아 동아시아인들이 즐기는 놀이에는 주술적 의미가 깃들여 있다. 세시풍속과 놀이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까닭은 (가)생산으로부터 거두는 수확의 풍요를 축원하는 유감주술적 의례의 성격, 혹은 (나)농사의 풍흉을 점(占)치는 행위나 (다)영(靈)들을 달래거나 제압하는 주술적 의례의 성격 때문이다. 그 예로 대만에서는 공휴일인 청명절(음력 4월 5일)에는 조상에게 성묘를 하고 연날리기, 봄놀이 등의 풍습이 전해진다. 단오절(2000년의 경우 6월 6일)에는 용선(龍船)대회를 비롯한 많은 행사가 열린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풍습[登高]이 있는 중양절(重陽節)은 대만 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도 명절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명절 자체를 축제의 계기로 삼는다. 인형을 복숭아꽃과 함께 장식하여 여자아이들의 행복을 비는 히나[雛]마쓰리(3월 3일), 남자아이들을 위해 잉어모양의 기를 올리고 무사인형을 장식하여 성장을 비는 당고[端午]마쓰리(5월 5일), 견우성과 직녀성이 일년에 한 번 만나는 일을 기리는 다나바다[七夕]마쓰리(7월 7일), 참억새로 장식하고 술과 떡을 장식하고 달을 즐기는 쓰기미[月見](음력 8월 15일), 남자아이는 3세와 5세, 여자아이는 3세와 7세를 맞은 아이들의 성장을 빌고자 신사에 참배하는 히찌코상[七五三](11월 15일) 등이 작은 명절이다.

국가는 전체적이고 집단적인 것과의 상호간섭적(inter-subjective) 개방을 통해 개별적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토록 유도함으로써 국가가 고취시켜려는 문화와 국민들이 원하는 문화를 적절히 가미한다.³⁷⁾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는 5월 1일 노동절과 6월 1일 아

37) 유럽에서 186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인 형태와 관주도적인 형태의 '민족공동체'를 반세기 가까이 형성시켜온 경우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된 셈이다. (베네딕트 앤더슨, 앞의 책, 132쪽)

동절, 10월 1일 국경절은 전국적으로 국민 모두가 즐기는 기념일로, 노동절과 국경절이 일요일과 겹치면 휴일을 하루 더 연장한다. 중국은 1949년 이래 획일적인 문화생산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집단적 관심을 유도, “개인의 이익은 국가와 집단의 이익에 복종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낭만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집단주의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왔다. 그로부터 더 나아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외쳐온 북한에서 ‘태양절’을 중시하는 태도 역시 국가주도형 동아시아문화의 극단을 보여준다.³⁸⁾

이렇듯 집단을 앞세우는 동아시아문화 가운데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삶을 꾸려가고 자아실현의 추구도 일정한 정도의 제약을 감수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휴일이라야 편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거꾸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날’인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가 이를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해야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2002년 한국이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4강에 올랐을 때처럼 기념할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임시공휴일을 만들어 쉬었다. 한국에서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 운동’이나 일본에서의 ‘바다의 날 공휴일 지정 운동’이 이를 보여준다. 신화적 요소를 드러내는 방식에는 의미의 표출 뿐 아니라 형태의 구비도 요구된다.³⁹⁾ 동아시아에서 그 형태에 해당되는 것이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었던 셈이다.

동아시아에서의 여가의 가치나 방식, 의미는 서구적인 개인주의나 합리적 가치관으로 해석해내기는 어렵다. 보드리야르는 서구사회에서도 ‘여가문화’를 계기로 완전히 개별적인 자아를 획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진정한 바캉스란 자기 자신 및 자기 시간의 상실이므로 시간이 결정적으로 객체화된 세계에 살고있는 사람들로선 절대 도달할 수 없기 때문⁴⁰⁾이라는 것이다. 평소 객체화되어 있던 인간들로선 여가가 주어져도 그 객체성으로부터 손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연 동아시아인들에게서의 공휴일은 히브류인들이 ‘안식일’이 ‘건강을 위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 것처럼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원래 휴일이란 노쇠를 물리치고 일상을 전복시키며

38) 관련 사이트: www.kcna.co.jp(조선중앙통신), www.unikorea.go.kr(통일부):2000년 4월 15일자 「노동신문」 사설은 “한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힘으로 심장을 불태우게하는 의의깊은 명절”이므로 “그의 위엄을 받들어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39) 롤랑 바르트 지음, 앞이 책, 29쪽

40) 장 보드리야르 지음,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문예출판사, 1992년), 235쪽.

41) 빅토르 터너는 사회와 문화의 기능을 연결시켜 설명하면서 휴일문화에 의례의 중간기와 유사한 ‘리미노이드(liminoid)’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모종의 규칙을 전제로 취미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 놀이 등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즐거움과 환희를 누리다보면 도덕구조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간의 관계가 긴밀, 평동해지는 ‘코뮤니타스(communitas)’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계기로 서열이나 신분 따위를 초월하여 ‘개별화된 인간’으로서의 ‘개성’을 획득하는 공동체적 분위기에서의 의사소통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liminal’과 ‘liminoid’에 대한 구분은 Langdon Elsbree, Op.Cit., PP.31-36.; CHAPTER 4: LIMINALITY AND POWER을 참조할 것.)

쇄신을 도모하기 위한 과도한 지출이 자행되고 신성성으로 포장된 공동체를 추구하는 계기이다.⁴¹⁾ 그러므로 '국가'나 '민족'이 강조되는 한에 있어 개개인이 날짜나 명칭을 자유롭게 선택한 '사휴일(私休日)'이 생겨날 가능성은 아주 적은 대신, 개인의 자유의 지가 국가주의에 억압당하는 일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테오도르 지올코우스키가 여가를 두고 "공적(公的) 시간과 사적(私的) 시간의 충돌계기", 혹은 "운명론과 자유의지론의 충돌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말한⁴²⁾ 갈등도 탈근대화의 진행과 더불어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지금까지 보듯 동아시아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민족적 구심점을 만드는 한편, 근대국가의 성립 내지 유지를 위해 공휴일을 제정하고 운용해왔다.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자 기념일에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단합을 도모하는 노력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이다. 한국은 전통적인 명절을 부활시키고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전후한 시기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념하는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였다. 일본은 신화에 등장하는 진무천황의 승천일을 비롯하여 현세의 천황을 기리는 기념일을 두어 국민적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주도한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민족허무주의와 외국숭배사상을 배척해왔다.

그런데, 근대화의 과정에서 서구적 변화만을 강조하면 전통문화의 지속성을 부정하게 되고 전통문화의 지속만을 강조하면 적절한 발전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 각국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전통민속에서 찾아낸 민족적 통합의 이미지나 상징을 근대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적절히 응용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명절이나 각종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한 원리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개천절이나 일본의 건국기념일에서 보듯 마치 고대에도 오늘날과 유사한 민족 개념이나 국가가 있었던 듯 보이게 만드는 전통의 창출과 이미지의 조작이 가해졌음도 사실이다.

공휴일 제정원리를 통해 본 동아시아지역은 이념과 풍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를 근대적으로 변용, 계승하는 '문화 전승 내지 창조' 면에서의 동질적 지역이라 하겠다.(*).

42) Theodore Ziolkowski, 『Dimension of the Modern Novel』(Princeton Univ. Press, 1969), PP.184-210.

참 고 문 헌

- 이승훈 『문학상징사전』(고려원, 1995년)
- 김열규 외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하)』(소화, 1996년)
-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한나래, 1999년)
- 정문길 외 『동아시아,문제와 시각』(문학과지성사, 1996년)
-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희숙역 『상상의 공동체』(나남출판, 2002년)
- 흠스보움, 랑거 편,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서경문화사, 1999년)
- .롤랑 바르트 지음, 정 현 옮김 『신화론』(현대미학사, 1995년)
- 제베데이 바르부, 임철규 역 『역사심리학』(창작과 비평사, 1990년)
- 레이몬드 윌리엄즈 저, 이일환 역 『理念和文學』(문학과 지성사, 1983년)
- 장 보드리야르 지음,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문예출판사, 1992년)
- J.F.노이로르 저, 전남석 역 『第3帝國의 神話-나치즘의 精神史』(한길사, 1981년)
- 손명철 편역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명보문화사, 1994년)
- 임영웅 『12억의 야망』(녹원출판사, 1992년)
- 김인옥 편저 『중국의 생활민속』(집문당, 1996년)
- 윤순희 『중국문화입문』(동양문고, 2000년)
- 괴대신.기홍 저, 박현규 역 『중국 민속학』(백산자료원, 1998년)
- 한국일본학회 『日本民俗의 理解』(시사일본어사, 1997년)
- 요시노 고사쿠(吉野耕作) 『현대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일본어뱅크, 2001년)
- Edited by Richard M.Dorson 『Folklore in the Modern World』(Mouton Publisher, The Hague.Paris,1978)
- Langdon Elsbree 『Ritual Passages and Narrative Structures』(Peter Lang Publishing,Inc., 1991)
- R.Williams 『Culture and Society 1780-1950』(Harmondsworth,Penguin, 1963)
- 燕中人 主編 中國文化大博覽(中)(南海出版公司, 1991年)
- 橋本裕之 『目からウロコの民俗學』(PHP研究所, 2002年)
- 芳賀日出男 『日本の民俗(下)-暮らしと生業』(クレオ, 1997년)
- 佐佐木高明 『日本文化の基層お探る』(日本放送出版協會, 1997年)
- 오재환 『한국의 '근대화' 의례 연구』(부산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년)
- 『국제신문』, 2002년 12월 27일자.
- 이와모토 미치야(岩本通彌) 『도시생활과 민속 - 정월참배의 생성과정을 통해서』, 동아대특강원고,1999년)
- 인터넷 사이트:www.kcna.co.jp(조선중앙통신), www.unikorea.go.kr(통일부)